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703-01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합평가(교육)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례

제1장 교육 부문 현황

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교육 부문 정책목표 달성도 1
2. 교육부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현황 2

제2장 교육 부문 정책군별 평가 결과

1. 교육복지 13
2. 평생교육 28
3. 교육공동체 37
4. 지역교육 거버넌스·지원체계 41
5. 제 4차 계획을 위한 시사점 종합 46

제3장 교육 부문 개선 방향 및 과제

1. 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방향 49
2. 신규 정책 아젠다 50

- 참고문헌 63

표 차례

제1장

<표 1-1> 교육 부문 성과지표 및 성과 목표	2
<표 1-2> 도시·농촌 주민의 삶의 질 (교육부문) 만족도 차이	3
<표 1-3> 농어촌 주민의 이주 희망이유	5
<표 1-4> 도시와 농촌의 취약계층 규모	6
<표 1-5> 도시와 농어촌의 조손가구 현황	7
<표 1-6> 다문화가족 청소년자녀의 사교육 경험	9
<표 1-7> 교육 부문 정책 과제 중요성·우수성 평가	9
<표 1-8> 지자체 교육 협력 여건의 활성화 정도	10
<표 1-9> 농촌 아이들(초·중·고)에게 시급한 교육 분야	10
<표 1-10> 지역유형별 문해교육 잠재수요 노인	11
<표 1-11> 지역별 문해 수준	12

제2장

<표 2-1>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총 사업비	14
<표 2-2>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추진체계	14
<표 2-3>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 여건 개선 총사업비	15
<표 2-4> 전체학교 및 전원학교 감소폭(2009-2011)	18
<표 2-5> 2009년 대비 전원학교 학생규모 증감 현황	18
<표 2-6> 거점별 우수중학교 성과지표	19
<표 2-7> 농어촌 시·도 초·중학교 통학수단 제공 이행 실태	21
<표 2-9>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현황	23
<표 2-10> 읍면동행복학습센터 사업규모	29
<표 2-11> 연도별 행복학습센터 참여 시군구 및 행복학습센터	30

<표 2-12>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자체(129개 시군구(2017년 12월 기준)) ...	31
<표 2-14> 충북 증평군 행복학습센터 주소 및 연락처	33
<표 2-15> 2015~2017 도교육청 교사 1인당 학생수	44

제3장

<표 3-1> 농촌유학 연도별 지원 현황	58
------------------------------	----

그림 차례

제1장

- <그림 1-1> 3차 삶의 질 계획 교육부문 목표와 주요 과제 1
- <그림 1-2> 농촌 읍·면 지역간 교육만족도 차이 4

제2장

- <그림 2-1>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18
- <그림 2-2> 교육 수요자 및 영역별 만족도 19
- <그림 2-3> 행복학습센터 사업추진체계 29
- <그림 2-4> 충북 증평군 행복학습센터 사례 34

제3장

- <그림 3-1> 4차 삶의 질 계획 교육부문 목표와 주요과제 49

제 1 장

교육 부문 현황

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교육 부문 정책목표 달성도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교육부문의 목표는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실현이었음.

〈그림 1-1〉 3차 삶의 질 계획 교육부문 목표와 주요 과제



-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 확충, 맞춤형 프로그램 및 주체 육성, 농어촌 학생의 교육 복지 확대,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 등이었음.
- ICT 기기 보급,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강화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확대. 하지만 농어촌 거점중학교 확대가 멈추는 등 공교육 서비스 확충이 미흡하며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 갈수록 악화
 - * 농어촌학교 ICT 기기보급률(%): ('14) 48 → ('17) 100
 -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참여학교수): ('14) 457 → ('17) 1,647
 - * 농어촌 거점중학교(누적): ('15) 80 → ('17) 80
 - * 평생교육 시설이 있는 읍·면 비율: ('15) 21.8 → ('17) 18.9

〈표 1-1〉 교육 부문 성과지표 및 성과 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2014 (실적)	2015 (실적)	2016 (실적)	2017 (실적)	2019 (목표)
농어촌 거점중학교(누계, 개교)	50	80	80	80	('17) 80
농어촌학교 ICT 기기보급률(%)	48	100	100	100	('17) 100
농어촌 특성화 프로그램(개)	-	1	2	6	10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참여학교수)	457	1,500	1,742	1,647	('17)1,700
농촌유학 지원시설 수(개소)	16	19	21	18	25
읍면내 행복학습센터 수(개소)	36	69	92		99
평생학습도시 지정 시·군·구 수(누계, 개)	-	-	-	153	160
농어촌 교육여건 만족도(10점척도)	4.94	5.48	5.37		-

2. 교육부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현황

- 도시민에 비해 농촌 주민들의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낮고, 농촌에서도 읍보다 면지역의 만족도가 낮음 → 농어촌내에서도 읍·면지역에 대한 차별적 접근 필요

- 농촌주민들의 도시민 보다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의 도시·농어촌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교육, 사교육, 학교 시설, 통학 등의 모든 항목에서 도시 보다 10점 만족 척도에서 1점 이상 낮았음.

〈표 1-2〉 도시·농촌 주민의 삶의 질 (교육부문) 만족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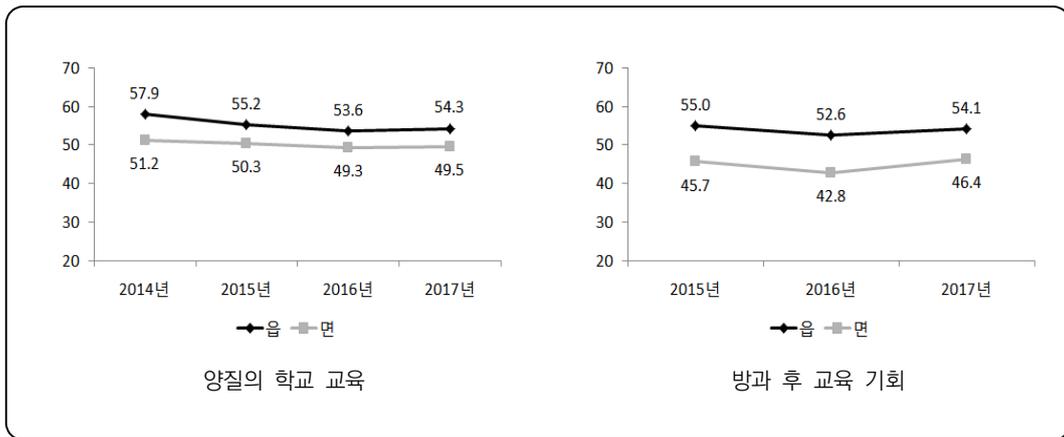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6.8	6.8	5.6	5.7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 각종 보습 학원, 예체능 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9	6.9	5.3	5.6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6.6	6.6	5.2	5.4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2017년 신규 문항)	-	7.0	-	6.1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2017년 신규 문항)	-	7.1	-	6.0
전체	6.8	6.9	5.4	5.8

*10점 만점 응답결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결과.

- 농촌지역 내에서 읍·면 지역간 교육만족도 차이가 있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의 농어촌 주민을 교육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 결과를 보면,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음. 한 예로 양질의 학교 교육 관련 문항에 대한 최근 4년간의 조사결과를 보면 모두 일관되게 읍지역 주민들의 교육 서비스 만족도보다 면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10점 만점 기준으로 5점 정도 낮았음.

〈그림 1-2〉 농촌 읍·면 지역간 교육만족도 차이



*10점 만점 응답결과를 100점으로 환산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만족도 조사결과.

- 농촌 주민 중에서도 젊은 세대의 교육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음. 농촌진흥청(2016)이 농촌주민의 이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관련(38.4%), 자녀교육(27.5%),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10.1%) 등의 순이었지만, 30대의 경우 1순위가 자녀 교육때문(36.3%)이고, 2순위가 주택(31.3%) 였음. 즉 초등학교 자녀를 둔 30대의 교육서비스 불만족이 가장 큼을 알 수 있음.

〈표 1-3〉 농어촌 주민의 이주 희망이유

구분		직업 관련 사유	주택 관련 사유	가족 관련 사유	가정 경제 상황의 변화로	건강 상의 이유로	자녀 교육 때문에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서	기타
합계 (370)		16.2	38.4	1.9	2.9	1.9	27.5	10.1	1.0
읍/면	읍 (245)	12.9	41.3	2.1	3.2	0.8	33.0	6.8	
	면 (125)	22.9	32.8	1.4	2.5	4.0	16.8	16.6	3.1
영농 여부	농어가 (80)	3.6	17.8		4.6	5.9	59.5	4.8	3.9
	비농어가 (290)	19.8	44.1	2.4	2.5	0.8	18.7	11.6	0.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28)	17.4	31.3	2.0	0.8	2.1	36.3	10.1	
	40대 (90)	15.0	55.5		3.5	1.5	20.7	3.9	
	50대 (31)	16.1	57.5	0.8	7.2		0.5	17.9	
	60대 (11)	7.7	19.6	17.4	9.1	5.1		26.7	14.3
	70대 이상 (9)	10.1	9.1		27.8	2.8	3.6	22.9	23.6

자료: 농촌진흥청.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

○ 도시보다 농어촌에 교육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이 많음 → 장애인,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조손 가족 학생들에게 대한 배려가 농촌 교육에 더 많이 이뤄져야 함.

- 취약계층은 개념적으로 결과적인 사회경제적인 빈곤 상태만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러한 결과에 놓이게 될 과정적 위험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의미함. 취약계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희망만으로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 그래서 사회통합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다양한 취약계층을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장애인, 다문화가족¹,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현황을 보면 표와 같음. 도시와 농촌지역의 취약계층 규모를 비교한 결과, 농촌지역에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자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전반적으로 도시에 비해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음.

1 장애인은 1명 이상의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 다문화가족은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결혼생활 중인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등의 가구원이 있는 가족을 의미.

〈표 1-4〉 도시와 농촌의 취약계층 규모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시·구	군	전체
장애인 (12)	전체	1,024,838 (4.4)	1,152,630 (4.9)	333,691 (8.6)	2,144,823 (4.6)	366,336 (8.1)	2,511,159 (4.9)
	중증 장애인	224,781 (1.0)	250,606 (1.1)	72,225 (1.9)	467,677 (1.0)	79,935 (1.8)	547,612 (1.1)
	경증 장애인	800,057 (3.4)	902,024 (3.8)	261,466 (6.7)	1,677,146 (3.6)	286,401 (6.4)	1,963,547 (3.9)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13)	전체 수급자	369,537 (1.6)	336,341 (1.4)	110,666 (2.8)	694,778 (1.5)	119,963 (2.7)	816,544 (1.6)
	남성	270,482 (2.3)	246,504 (2.1)	77,548 (4.0)	509,033 (2.2)	85,501 (3.8)	594,534 (2.3)
	여성	351,208 (3.0)	321,467 (2.7)	98,499 (5.1)	662,964 (2.9)	108,210 (4.8)	771,174 (3.0)
다문화 (12)	결혼 이민자	90,844 (0.4)	105,957 (0.5)	23,466 (0.6)	194,585 (0.4)	25,682 (0.6)	220,267 (0.4)
	영유아기 자녀	36,531 (0.157)	51,850 (0.219)	16,048 (0.411)	87,014 (0.187)	17,415 (0.387)	104,429 (0.205)
	학령기 자녀	16,726 (0.072)	22,269 (0.094)	6,985 (0.179)	38,515 (0.083)	7,465 (0.166)	45,980 (0.090)
	청소년기 자녀	5,582 (0.024)	7,545 (0.032)	2,169 (0.056)	12,933 (0.028)	2,363 (0.053)	15,296 (0.030)
	후기 청소년기 자녀	967 (0.004)	1,352 (0.006)	294 (0.008)	2,291 (0.005)	322 (0.007)	2,613 (0.005)

주 1) 시·군·구 단위 기준으로 구분함.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촌으로 구분시 대도시는 75개 지역, 중소도시 77개 지역, 농촌은 78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시·구와 군은 각각 149개 지역, 군은 83개 지역으로 구분함. 군지역이 83개 지역이지만, 대도시 인접군(예, 기장군, 울주군 등)을 대도시 지역으로 편입함으로 농촌지역 개수에 차이가 발생함.

2) 2014년도 안전행정부 행정구역 기준임.

3)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2급이고, 경증장애인은 장애등급 3~6급임.

4)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 수급자임.

5) () : 인구학적 특성은 구성비율, 나머지는 지역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송미령 외(2016). 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촌에는 특히 노인부부가구, 독거노인가구,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조손가구의 비중이 도시보다 높음. 우리나라 전체 아동 수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조손가구와 조손가

족의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농촌진흥청(2017)이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구 대비 조손가구의 비중이 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60%이상 높았음(2015년 도시 0.53%, 농촌 0.88%). 농촌 조손가족의 청소년들은 함께 사는 조부모와의 대화 및 이해에 심각한 단절을 경험함. 청소년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가족해체의 사유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한 낮은 자존감등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음(박옥임·김진희 2008)².

〈표 1-5〉 도시와 농어촌의 조손가구 현황

단위: 가구, %

연도	구분	일반가구	조손가구	
			비율	
2005	농어촌	3,142,188	21,633	0.7
	도시	12,744,940	36,468	0.3
2010	농어촌	3,308,353	32,626	1.0
	도시	14,031,069	86,668	0.6
2015	농어촌	3,623,129	31,776	0.9
	도시	15,487,901	81,335	0.5

자료: 농촌진흥청.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

-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13세 이하 아동이 64.60%로, 도시(55.14%)에 비해 높음. 도시에는 21.67%가 중도 입국하였으나, 농촌에는 9.16%에 그침. 농촌 다문화가족 아동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볼 수 있음. 이들 중 한국 국적이 있는 아동은 농촌은 68.94%이고, 도시는 58.26%. 이들 농촌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교육 경험률은 55.44%로 71.30%인 도시에 비해 낮으며, 일주일 평균 시간도 7.62시간으로 도시(9.03시간)에 비해 적었음. 농촌의 다문화가족 청소년 연구(조성영 2016)³에 따르면 다문

2 박옥임·김진희.(2008). 농촌 조손가족 손자녀의 일탈행동에 관한 연구: 3세대 가족과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3(3): 73-88.

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고학년이 될수록 심도 있는 대화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어휘력의 한계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폐쇄적인 질문으로 일관하는 대화형식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친밀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생활지도 관련은 본국에서의 교육수준이 낮고 이주생활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부모의 자녀들은 학습능력, 주변인식 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부모 교육이나 지역단체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 등에 참석을 하지 않고 등한시하는 태도가 자녀의 생활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면을 보임. 진로에 대한 기대는 자녀들의 진로방향과 선택에 있어서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얇은 어휘 량의 의사소통으로는 진로나 학과 선택 등에 대한 대화가 불가능함.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부모 자녀간의 마음과 정서를 공유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좌절 또한 많이 겪음. 한국문화의 습득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편과의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의 과정이 양육의 어려움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침. 가정생활 모습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가정학습이나 학습보조역할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나 지역사회단체에서 지원되는 혜택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학업능력이 높았던 자녀들의 경우는 좀 더 심화적인 학습을 요구했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부족하여 학습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됨. 학교생활 모습은 학교 참여 활동이 활발하고 교육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모의 자녀들은 학교생활에 적극적이고 학습능력도 뛰어났으며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은 학교생활이 매우 소극적이며 학습 자체에 관심이 없음.

〈표 1-6〉 다문화가족 청소년자녀의 사교육 경험

N=3,999, 단위: %

구분		농촌	도시
사교육 여부	있음	55.44	71.30
	↳ 일주일 총 평균시간(SD)	7.62(6.00)	9.03(6.18)
	없음	44.56	28.70
계		100.0	100.0

자료: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2).

- 교육 부문 네가지 정책 영역(농어촌 특성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주체 육성, 농어촌학생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 중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부문이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됨. 농어촌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제 3차 삶의 질 계획 교육 부문의 중요한 정책 과제 우선 순위로 ‘농어촌 특성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이라는 응답이 31.4%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 학생 교육복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주체 육성,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 순이었음. 한편 제3차 삶의 질 계획 교육 부문 정책과제 중에 성과가 우수했던 과제로는 ‘농어촌학생 교육복지 확대’의 응답이 31.5%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 특성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주체 육성,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 순이었다.

〈표 1-7〉 교육 부문 정책 과제 중요성·우수성 평가

설문 문항	정책 과제 평가(%)	
	중요성	성과 우수성
농어촌 특성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31.4	29.1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및 주체 육성	24.0	23.6
농어촌학생 교육복지 확대	24.9	31.5
농어촌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	19.8	15.8
합계	100.0	100.0

* 복수응답 문항으로 1, 2순위 합쳐서 집계함

- 농촌 주민들은 농어촌 교육 여건과 관련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당국과 지자체간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표 1-8〉 지자체 교육 협력 여건의 활성화 정도

설문 문항	점수(7점 만점)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3.8
귀하가 사는 지자체는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3.8

- 농촌 주민들에게 농촌 아이들(초·중·고)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본 인성교육’(34.4%), ‘기초학력교육’(27.2%) 이었고, 그 다음 진로교육,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직업교육, 예체능교육 등의 순이었음.

〈표 1-9〉 농촌 아이들(초·중·고)에게 시급한 교육 분야

설문 문항	응답 비율(%)
기본 인성교육	34.4
기초학력교육(국영수)	27.2
진로교육	12.5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8.7
직업 교육·훈련	8.0
예체능교육	6.6
다문화 교육	2.2
기타	0.4
합계	100.0

* 복수응답 문항으로 1~3순위 중 1, 2순위를 합쳐서 집계함

- 도시에 비해 농촌, 특히 노인들의 비문해 상황이 심각한 상황임.
 -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5)에 의하면 65세 이상 농촌 노인 중 무학자는 50.3만 명, 초등학교 중퇴자는 9.3만 명, 초등학교 졸업자 71.4만명, 중학교 중퇴자 1.9만명 등였음. 국가평생진흥원(2017)의 기준에 의하면 이들이 잠재적 문해교육 대상자라 할 수 있음(초등교육 잠재수요자 59.6만명, 중학교교육 잠재수요자 73.4만명 등 133만명)⁴. 농촌 노인의 경우

32.2%가 초등교육 잠재수요자, 39.7%가 중학교교육 잠재수요자로, 도시 지역(16.1%, 30.7%)보다 많았음. 농촌 지역 중에서도 읍지역(26.9%, 38.0%)보다 면지역(35.0%, 40.5%)이 초등교육, 중학교교육 잠재수요노인이 많았음. 전체 인구대비 해보면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노인 비율이 도시(5.3%)에 농촌이 3배(15.9%) 가량 많았음.

- 65세 이상 농촌 여성 노인의 38.7%(읍 31.6%, 면 42.4%)가 무학으로 도시지역(18.7%)의 2배 이상 많음. 농촌 노인 무학자의 80%가 여성임.

〈표 1-10〉 지역유형별 문해교육 잠재수요 노인

단위: 명(%)

대상		읍	면	농촌	도시	전체
	무학 (A)	138,376 (21.8)	364,656 (30.0)	503,032 (27.2)	565,420 (12.4)	1,571,484 (19.0)
	초등학교 중퇴 (B)	31,934 (5.0)	61,405 (5.0)	93,339 (5.0)	170,083 (3.7)	356,761 (4.3)
	초등학교 졸업 (C)	232,703 (36.7)	481,481 (39.6)	714,184 (38.6)	1,328,182 (29.1)	2,756,550 (33.4)
	중학교 중퇴 (D)	8,377 (1.3)	11,582 (1.0)	19,959 (1.1)	69,723 (1.5)	109,641 (1.3)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E)	411,390 (64.9)	919,124 (75.5)	1,330,514 (71.9)	2,133,408 (46.8)	4,794,436 (58.0)
중학교 졸업 이상		222,691 (35.1)	297,496 (24.5)	520,187 (28.1)	2,424,842 (53.2)	3,465,216 (42.0)
노인 인구(F)		634,081 (100.0)	1,216,620 (100.0)	1,850,701 (100.0)	4,558,250 (100.0)	8,259,652 (100.0)
전체 인구 (G)		4,374,989	4,013,001	8,387,990	39,951,569	48,339,559
초등교육 잠재수요 노인비율((A+B)/F)		(26.8)	(35.0)	(32.2)	(16.1)	(23.3)
중학교교육 잠재수요 노인비율((C+D)/F)		(38.0)	(40.6)	(39.7)	(30.6)	(34.7)
전체인구대비 노인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비율(E/G)		(242.2)	(215.7)	(223.3)	(290.7)	(248.9)

자료: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의 잠재수요자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음.

- 초등학교 잠재수요자 = 초등학교 중퇴+미취학,
- 중학교 잠재수요자 =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중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7)의 성인문해능력조사⁵에 의하면 서울 및 광역시는 비문해 비율이 4.8%, 중소도시는 5.5%인데 비해 농산어촌은 21.4%였음. 기능 문해 비율은 서울 및 광역시 76.2%, 중소도시 71.1%인데 비해 농산어촌은 45.4%였음.

〈표 1-11〉 지역별 문해 수준

단위: %

지역	2014년 조사				2017년 조사			
	수준1	수준2	수준3	수준4	수준1	수준2	수준3	수준4
서울 및 광역시	5.7	4.3	9.2	80.8	4.8	4.8	14.2	76.2
중소도시	7.2	5.4	11.0	76.4	5.5	6.2	17.3	71.1
농산어촌	16.2	7.5	9.4	67.0	21.4	12.2	20.9	45.4
전체	7.2	5.1	10.1	77.6	6.4	6.0	16.2	71.5

자료: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2017)

⁵ 10세 단위로 연령구분이 되어 있어 65세가 아닌 60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음.

제 2 장

교육 부문 정책군별 평가 결과

1. 교육복지

1.1. 정책군 개요

- 2-1-1-1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중심학교에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농어촌 학생 교육 내실화
 - 농어촌 초·중학교 학력 증진, 특기·적성 계발, 맞춤형 돌봄 등 교육여건 개선 지원, 농어촌 ICT 기반 확충(사업 기간: '09.6월 ~'16.2월)
 - 사업규모: 총 사업비(2013~15년: 160,270백만 원)(지방비: 특교)

- 2-1-2-1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지속 발전 가능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 면 소재 중학교 대상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우수중학교를 집중 지원하여 농·어촌 중학교 선도모델 제시
 - ※ 농어촌지역 145개 시·군·구 중 80개 군에 면지역 거점별 우수 중학교

- * 1군 1개교 육성·지원
- * 연도별 선정학교 수 : 20교(2013) + 30교(2014) + 30교(2015) = 계 80교
- 사업기간: 2013. 7 ~ 2018. 6
- 총사업비: 86,037.2백만원

〈표 2-1〉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총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사업비	10,000	25,200	23,687.2	18,100	9,050	86,037.2

- 사업규모: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 지원('17): 30교, 9,050백만원(1교당 3억 원 내외)
- * ('13) 20교 → ('14) 50교 → ('15) 80교 → ('16) 60교 → ('17) 30교
- * 농어촌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컨설팅 및 성과관리 : 50백만 원
- 지원조건 : 공모(교육지원청 추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평가 선정)
- 지원규모 : 교당 3억원(3년)
- 시행주체 :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 지원대상(수혜자): 면 소재 중학교(재학생 60명 이상)

〈표 2-2〉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추진체계

기 관	역 할
교육부	• 지원 방안 수립 및 예산 교부 등
시·도교육청	• 광역학구제, 학교장 공모제, 진로교사 배치 등 지원
교육지원청/시·군	•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를 위한 MOU 등 지원 방안 마련
(중)학교	•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방안 수립·추진 -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학여건 개선 등 - 인근소재 학교를 포함한 지역적 관점에서 사업효과 연계 도모
농어촌교육지원센터	• 성과 분석,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 등 실무 지원

- 2-1-3-1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 여건 개선
 - 스마트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등 ICT 인프라 확충, 스마트 멘토링, 콘텐츠

츠 개발·확보 및 활용 여건·능력 제고 지원

- * 학생의 학습효과 제고, 정서적 안정 및 ICT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멘토 배치
-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학교부터 우선 지원, 농산어촌 초·중학교 전체로 단계적 확대
- * 2014년 2,000개교 → 2015년 4,008개교(농산어촌 초·중 전체 학교)
-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7,966.8백만원

〈표 2-3〉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 여건 개선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사업비	5,849	16,155	10,962.8	1,200	2,000	1,800	37,966.8

- 2016년에는 특별교부금 3년 지원이 끝나 교원역량강화 연수비를 전년 대비 14% 지원함.

○ 2-1-4-1 농어촌학교 통학여건 개선

- 지역 단위의 통학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 우수 모델 발굴·확산
 - * 통학여건 개선사업 우수 모델 발굴 및 분석(2015~2016), 확산 지원(2017~)
- 사업규모 : 중앙정부 예산 없음(시·도교육청 자체 운영. 2017년 3,213대, 174,002백만원으로 집계)

○ 2-3-1-2 다문화가족자녀 교육 지원

- 농어촌지역 학교 여건을 고려한 예비학교와 중점학교를 운영하여 다문화학생의 언어·문화이해 교육 및 학교적응을 지원
 - * (예비학교) 다문화학생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집중 이수 지원
 - * (중점학교) 다문화학생과 상호간 이해 제고 및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모든 재학생에 다문화이해, 반편견·반차별 교육 실시

- 사업규모
 - * 총사업비 : 1,770백만원(2017년까지 기 투자액 : 13,301백만원)
 - * 예비학교 운영(2018) : 40학급, 1,120백만원(학급당 28백만원)
 - * 중점학교 운영(2018) : 130교, 650백만원(학교당 5백만원)
 - ※ 중점학교는 2개년 사업으로 진행(2017~2018년)
- 2-2-1-1 농어촌 진로교육 강화
 - 직업체험 기회가 적은 농어촌 학생을 위해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 농어촌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대 배치('19년 95%)
 - * 도서벽지·소규모학교 등에는 순회교사 형태로 운영
 - '18년까지 농어촌 전체 중·고교에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상담·멘토링 지원 추진
 - 원격화상 시스템으로 전문직업인 멘토를 매칭하여 진로·직업체험 지원
 - * ('13) 57교 → ('14) 408교 → ('15) 900교 → ('16) 1,400교 → ('17) 1,600교 → ('18) 1,700교

1.2 추진 실태 평가

□ 농산어촌 전원학교

- 주요 사업 내용
 -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 * 자연 친화적 시설 및 환경 조성, 첨단 e-러닝 교실 구축
 - 우수 인력 배치 활용
 - * 교장 공모제, 교사 공모제, 교사 초빙제
 - 인턴 교사 증 보조인력
 - * 프로그램 기획 인력 지원
 - 학교운영의 자율성 강화

- *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보, 순환보직제도 개선, 교직원 인센티브 부여
 -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
 - * 지역 주민의 교육·문화공간 제공, 주민 참여 프로그램 제공, 지역 개발 사업 연계
 - 강한 프로그램 운영
 - *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방과후 교육 활동 장려, 도농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정책평가
- 선정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이 자연친화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현저히 줄어들고 과목별로도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학습환경 조성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전원학교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고 있음.
 - 전원학교의 성공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1/5은 학교의 성과이고, 선정되지 않은 4/5의 학교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학습해야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였음.
 - 전원학교의 성공적인 결과를 농촌의 모든 학교에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필요함.
- 주요 성과
- 농산어촌 면소재 학교의 1/5 이상이 전원학교 사업 참여
 - 기초학력 미달 비율 감소
 - 전체 학교와 비교, 기초학력이 뒤쳐진 학생이 현저히 줄어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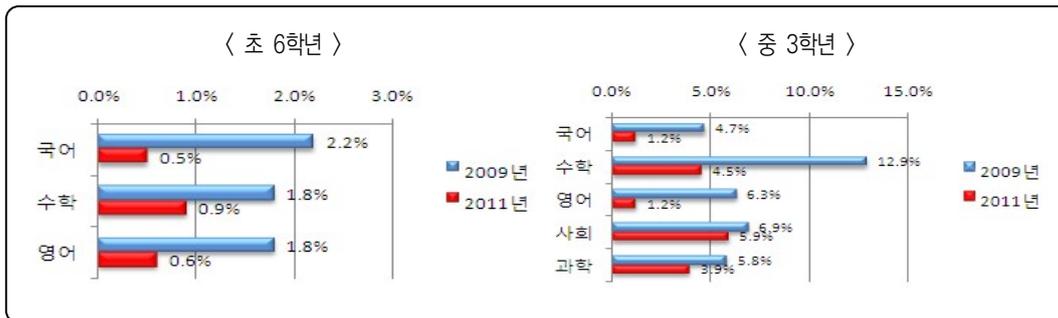
〈표 2-4〉 전체학교 및 전원학교 감소폭(2009-2011)

구분	초6		중3		합계	
	전체	전원학교	전체	전원학교	전체	전원학교
'09년→'11년(%)	1.6→0.8	1.7→0.6	7.1→3.7	7.3→3.3	4.4→2.6	4.4→2.3
감소폭(%p)	△0.8	△1.1	△3.4	△4.0	△1.8	△2.1

자료: 교육부, 학업성취도 평가(2009-2011)

-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있음.
- * 중3 ('09→'11) : 국어(4.7%→1.2%), 수학(12.9%→4.5%), 영어(6.3%→1.2%)

〈그림 2-1〉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자료: 교육부, 학업성취도 평가(2009-2011)

- 재학생수 감소폭 둔화: 농어촌의 지속적인 학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원학교의 재학생 감소폭이 적으며, 그 중 약 47%의 학교는 학생 수 증가
- * 농어촌 학생 수 증감폭 : ('09) △4.8%p → ('10) △2.8%p → ('11) △3.5%p
- * 전원학교 학생 수 증감폭 ('09) △2.8%p → ('10) + 0.9%p → ('11) △0.7%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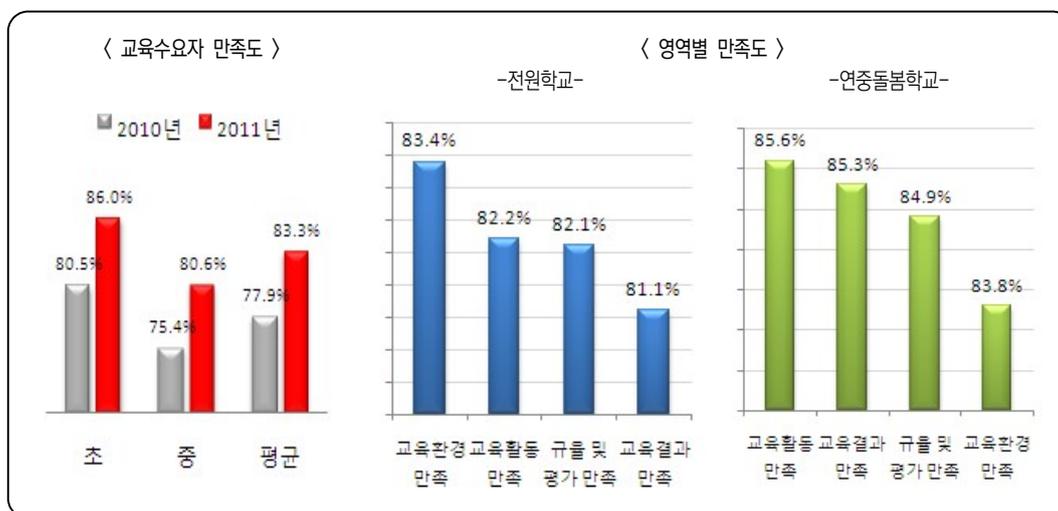
〈표 2-5〉 2009년 대비 전원학교 학생규모 증감 현황

구분	초			중			합계		
	계	유지·증가	감소	계	유지·증가	감소	계	유지·증가	감소
'09년 → '11년(교)	77 (100%)	36 (46.8%)	41 (53.2%)	33 (100%)	16 (48.5%)	17 (51.5%)	110 (100%)	52 (47.3%)	58 (52.7%)

* 대상: 전원학교(110교)
 자료: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2), 전원학교 추진과정과 성과.

- 교육수요자 만족도 상승: 학교의 교육환경,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요인에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음('10) 77.9% → ('11) 83.3%).
- * 전원학교는 교육환경 만족도, 연중돌봄학교는 교육활동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이는 각 사업별로 투입한 재정지원과 비례

〈그림 2-2〉 교육 수요자 및 영역별 만족도



자료: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2).

□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 성과목표

〈표 2-6〉 거점별 우수중학교 성과지표

성과지표	가중치* (성격**)	구분	실적		목표치	자료 수집방법 및 출처
			'16년	'17년	'18년	
①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만족도	1 (정량)	목표	3.8	4.0	4.1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사업 성과관리보고서(서울대 농어촌 교육지원센터)
		실적	4.0	4.07		
		달성도	105%	102%	-	
측정산식 (측정방법)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 실시 이후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5점 만점)					
목표치 산출근거	- '17년도 실적(4.07)을 감안하고,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지원 마지막 해 인 것을 고려하여 '17년 목표대비 '0.1' 상향된 '4.1'로 목표치 설정					

○ 정책 목표 달성도

- 정책 비전·목표 달성여부

* '16년 만족도 4.0 (3.8), '17년 만족도 4.07(4.0), '18년 만족도 4.1 (4.1)

- 성과 및 파급효과

* 주민 만족도 향상됨, 주민 공교육 신뢰도 향상됨, 기초학습지원과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감소, 학생 수 유지 혹은 증가(학군 외 학생 유입),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로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 여건 개선

○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됨(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서벽지 소규모학교부터 우선 지원한 것은 매우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음).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연도별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하여 집행함.

○ 성과 지표를 ICT 환경 구축 학교수에 한정하고 있는데, 구축된 ICT 환경이 교과수업, 방과후학교 등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음.

○ 주요 성과

- 농산어촌 전체 초·중학교 ICT 인프라(스마트 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스마트 멘토링 등) 구축 완료

- 농산어촌 전체 초·중학교에서 온라인콘텐츠(수학·과학, 진로체험, 문화·예술, 체육콘텐츠, 창의적체험활동, EBS 콘텐츠 등) 활용 가능

□ 농어촌학교 통학여건 개선

○ 이 정책은 학교 통폐합으로 농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통학 수단의 제공과 관련된 정책으로 매우 유의미하나, 중앙정부가 배정한 예산이 없고 시도교육청이 자체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주요 성과

-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
- 2015년~2017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어촌 시·군에서 통학수단 제공 이행 수준은 50% 대 정도로 저조하게 나타남.

〈표 2-7〉 농어촌 시·도 초·중학교 통학수단 제공 이행 실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군	57.0%	64.2%	65.6%
도농복합시	44.6%	53.7%	51.7%
전체 농어촌 시·군	51.3%	59.4%	59.1%

자료 : 2015~2017 각 연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중 통학 수단 제공 비율을 인출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 지원

○ 주요 실적

- 한국어 구사가 곤란한 학생에게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2016년 31학급 → 2017년 40학급)
- 학교 내 한국어 교육 대상 학생이 소수인 경우 ‘찾아가는 예비학교’ (2016년 13개 시도 → 2017년 15개 시도)
 - * ‘찾아가는 예비학교’ : 교육청 또는 인근 예비학교에서 한국어강사 등 지원
-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중점학교 확대 운영(농어촌 124개교 → 130개교)
 - * 중점학교는 종래 1년 단위 운영이었으나 2년 단위 사업으로 전환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문화 중점학교 교육용 자료집’을 개발하여 배포함.

□ 농어촌 진로교육 강화

- 연도별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지원 학교 수 확대를 통한 지역격차 해소 도모 및 수혜학생 증가

〈표 2-8〉 원격영상 멘토링 지원 학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초등학교	18교	135교	265교	372교	390교
중학교	39교	306교	1,165교	1,255교	1,131교
고등학교	-	16교	70교	115교	126교
계	57교	457교	1,500교	1,742교	1,647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평가자료

- 학교·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주제 선택 및 멘토 섭외로 맞춤형 멘토링 제공
 - 동일 시간대 약 6종의 수업을 제공하여 학교·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택 수강토록 지원
 - ※ ('13년) 중앙에서 일괄 제공하는 시간 및 프로그램만 참여
 - ('14년) 사전 공지된 시간표를 참고하여 학교에서 프로그램 자율 선택
 - ('15~17년) 시간·내용 등 학교에서 자율 선택(동일 시간대 6종의 수업 제공)
 -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직업분류별로 멘토단(Mentor Pool) 구성·운영
 - ※ '17년 한국고용직업 분류에 따라 349개 직업의 485명 멘토로 참여
-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진로멘토링 제공
 - 학교·학생이 요구하는 분야의 멘토를 섭외하여 학교에 매칭지원
 - 진로체험버스,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등 타 사업과 연계한 형태로 수업 운영

- 수업 및 진로탐색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멘토링 수업 콘텐츠 영상 51종, 멘토 직업 소개 영상 28종, 직업카드뉴스 영상 20종을 제작
- 주요 성과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현황('17년 수업 8,875회, 참여멘토 485명)

〈표 2-9〉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현황

시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초	11	127	15	25	25	367	229	189	220	159	199	408	382	82	2,438
중	46	132	105	75	27	755	541	575	711	436	967	914	690	71	6,045
고	0	0	6	0	0	98	107	18	0	27	31	49	52	4	392
합계	57	259	126	100	52	1,220	877	782	931	622	1,197	1,371	1,124	157	8,875

※ 주요 참여 멘토 및 수업 주제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창시절 작은 꿈, 세상을 품다
- 제임스최 주한호주대사 / 한국계 주한호주대사의 특별한 수업
- 박상현 빅데이터엔지니어 / 4차산업특집 실리콘밸리 이야기
- 이도민 이펙트아티스트 / 세계 최고 애니메이션 기업 드림웍스 이야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 삶의 질 시행계획 평가자료

1.3 제4차 계획 제언

□ 농산어촌 전원학교

- 선정되지 못하는 학교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황폐화 됨.
 - 농촌지역의 학교 중 선정된 학교에만 재정을 지원하고 정책적 배려를 하기 때문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짐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모든 학교로 확대
 - 농촌교육을 활성화하고 농촌의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원학교의 모델을 모든 농촌학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농촌이 가지는 생태 중심교육, 자연친화적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학교를 전원학교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개발 필요

○ 농산어촌의 여건에 부합된 새로운 모델의 전원학교 육성(우수사례)

[우수사례] 세종시교육청, 농촌 전원학교 확대 운영

- 2018학년도, 농촌 전원학교 2개교에서 10개교로 대상 확대 -
전교생 20명인 폐교 직전의 학교에서 학생 정원을 초과하여 전학대기자가 있는 인기학교로!

봄이면 모내기, 썩 캐기, 여름이면 물놀이 캠프, 가을이면 밤 줍기, 추수하기, 겨울이면 썰매타기... 사계절 닭과 토끼 등 동물 기르기와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 여기에 1인 1담임교사와 1:1 학습·생활지도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지도, 그리고 다양한 예술·문화·스포츠 프로그램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이 모든 활동들은 세종형 농촌 전원학교인 수왕초와 의량초에서 실제 진행 중인 프로그램 중 일부이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금까지의 농촌 전원학교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18학년도에는 대상학교를 면지역에 있는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 10개교* 전체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 연동초, 쌍류초, 연남초, 수왕초, 감성초, 전동초, 장기초, 의량초, 연동중, 장기중

지난 해 농촌 전원학교를 운영한 수왕초와 의량초를 보면 학생 수가 2014년에 각각 20명, 38명이던 것이 2017년에 75명, 66명으로 크게 늘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2014년에 각각 38%에서 0%, 3.9%로 감소하였으며, 토요일과 방학 중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도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농촌 전원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일률적으로 3,500만원씩 지원하던 예산을 올해부터는 학교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1,500 ~ 2,500만원까지 융통성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추진과제에서도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 학교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영역을 추가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 조건을 제공하는 농촌의 소규모 학교 특성을 심분 활용하여 그동안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쳐왔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력증진 프로그램, 특기·적성 계발, 맞춤형 돌봄, 학교 특색 프로그램 운영 등 농촌 전원학교의 장점을 확대·발전시켜 '스스로 찾아오는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장기간의 평가 지표를 만족도로 단순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우수중학교의 평가 요소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교원의 지도력, 학생의 자율성, 진로목표의 명료성, 특성화 교육과정 유·무,

지속가능성 여부, 만족도 등)

- 시범운영으로 그치지 말고 성공적인 사례는 계속 지원하며, 학교의 유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정책

- 농산어촌형 학교혁신
- 교육복지(기초안전망, 기초학습, 문화·예술·체육, 사회성, 심리·정서 등) 지원

□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 여건 개선 관련

- 구축된 ICT 환경이 교육 활동에 의미있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구축된 ICT 기기 및 환경이 활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임.
- 교원이 구축된 ICT 기기 및 환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이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음.
- 학생이 스마트폰 중독 등 ICT 관련 부작용을 겪는 경우, 이의 최소화를 위해 다시 ICT 기기 및 환경을 이용한 ‘온라인 멘토링’을 실시하는 것의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

□ 통학여건

- 2015년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농어촌의 12세 이상 학생들의 주된 통학수단은 도보(37.1%), 시내·좌석·마을버스(29.3%), 승용·소형승합차(13.9%), 통근·통학버스(9.1%) 순으로 나타남.
-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거리 및 통학 실태 파악이 필요함. 지나치게 긴 통학

버스 노선으로 인해 등·하교 시간이 길어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중앙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에 관련된 최소한의 예산(우수 사례 발표회, 사례집 등 발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우수사례] 강원도교육청의 '에듀버스'

- 학교별로 배정된 버스를 시·군별로 묶어 등·하교와 현장체험학습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
- 개별 학교가 관리하던 학교버스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교통수단을 공유하는 개념
- 학생들은 집에서 가까운 노선을 선택해 등·하교시 이용

□ 다문화 가족 자녀 등

- 농어촌 다문화가족 자녀에 특화된 사업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 및 그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예비학교의 많은 프로그램이 특정 언어권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의 평가 지표상 농촌 지역 주민의 '다문화 감수성(혹은 수용성)'과 관련된 지표나 농촌 지역 거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별도의 지표가 없어 농어촌 지역 다문화 가족 자녀의 삶의 질 실태가 전혀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 농어촌 거주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다문화 학생 및 다문화 가족 학부모 대상 교육 실태 및 삶의 질(만족도 등) 조사, 대상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정도 등 다양한 지표 활용 필요

[우수사례 1] 전북 장수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26명 중 10명이 다문화가정 자녀(2016년 기준)
- 건강한 가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부 관계 상담'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시행
- 자녀의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해 이주 여성인 어머니의 열등감 해소에 노력

[우수사례 2] 전남 함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 가정을 개별 방문하여 가정 내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도움을 제공
- 가정 방문 시 이중언어 사용의 필요성 강조에 주력(교육청과 연계하여 '이중언어 가정환경 만들기' 사업 추진)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양 보다는 질에 무게 중심.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핵심에 '교육 지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주민 여성의 정착 초기 단계부터 자녀 관련 서비스를 제공.

□ 농어촌 진로교육 강화

○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진로 교육

- 직업 세계를 균형있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멘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4개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3개 분류의 멘토가 전체 멘토의 50%를 차지하는 편중 현상 발생
 - ※ 상위 3개 분야: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 멘토링을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이 쉽게 만나기 어려운 직업인들을 만나고 있으나 만남이 1회성 수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다수
- 멘토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멘토 발굴 필요
- 도시중심의 직업, 진로에서 벗어나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교육
- 멘토링을 연속된 형태로 구성하여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멘토링 수업 전후로 멘토가 직접 학생들을 방문하여 대면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멘토·학생 간의 유대 강화 필요

우수사례: 완주진로교육지원센터

전북 완주군이 어린이들의 특색있는 진로체험을 위해 '작은 농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지난 2016년 주민참여예산 정책분과의 공모사업에서 이서면 이성옥씨가 공모한 사업으로 아이들에게 농촌과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일상생활과 농업간의 긴밀한 관계를 이해시키고 있다. 또한 농촌의 미흡한 교육여건으로 도시로 전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에게 농촌의 매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완주군의 다양한 교육복지정책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참가 가족 간의 교육정보 교류 및 소통의 통로를 구축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서길종 완주진로교육지원센터장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농촌체험을 함으로써 농업의 이해를 돕고 그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통해 진로직업교육의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있다"고 했다. (프레시안 2018. 6. 18)

2. 평생교육

2.1. 정책군 개요

○ 2-4-2-1 농어촌 평생교육 기반 확충

- 소외지역 주민이 근거리에서 양질의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행복학습센터 운영 확대
- 읍·면단위 이하 마을주민 중 평생교육지도자를 육성, 지역평생교육전담 인력으로 배치하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전문성 보강
- 2013년부터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의 일환으로 ‘읍면동행복학습센터’⁶ 운영 가시화
- 사업규모 : 2014~2017 총사업비 30,161백만원(국비 9,471백만원, 지방비 20,690백만원)

6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분야 공약으로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그 속에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이어 교육부는,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의 과제로 구체화

〈표 2-10〉 읍면동행복학습센터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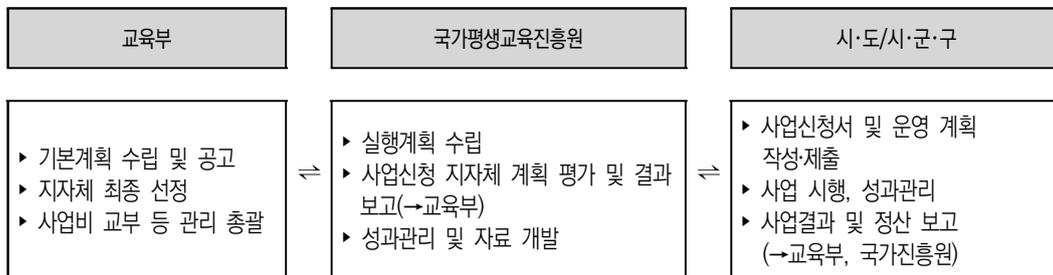
구 분	국비 ⁷	지방비	합계
2014	1,896	3,759	5,655
2015	2,896	5,495	8,391
2016	2,898	9,922	12,820
2017	1,781	1,514	3,295
계	9,471	20,690	30,16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평가자료

○ 사업추진체계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을 공모하고 시군구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을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계획 평가하여 지자체 선정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그림 2-3〉 행복학습센터 사업추진체계



* 법적근거: 평생교육법 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 사업비를 교부한 시군구는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읍면동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으로 ‘행복학습매니저’를 양성하여 배치하고, 또 행복학습센터 운영의 전반을 관리하는 거점센터도 운영
- 사업비는 강사료, 기술정보활동비, 교재비, 재료비, 강의보조인력, 여비, 회의비, 동아리지원비 등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
- 3년 지원 사업에서 국비는 1개 시군구당 최대 3,150만원까지 지원하녀,

7 국비 지원조건: 지원금액의 60%이상을 지방비로 대응투자(시도 10%, 시군구 50%)

지원받은 시군구는 거점센터 1개소와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3개소 이상을 운영이 의무

- 단년 지원사업에서 국비는 1개 시군구당 600-3000만원을 지원하며 거점센터 1개소와 읍면동행복학습센터 1개소 이상을 운영
- 지자체는 지방비로 국비의 60%(시도 10%, 시군구 50%) 이상에 상당하는 예산을 대응 투자 필수

○ 행복학습센터 운영 시군구수/ 행복학습센터수

- 2013년 시범사업
- 2014~2017년까지 국가 - 시도 - 시군이 공동지원사업으로 운영
- 2018년부터는 국가지원은 중단, 지방비로 운영

〈표 2-11〉 연도별 행복학습센터 참여 시군구 및 행복학습센터

	시군구				행복학습센터	비고
	1년차/ 신규	2년차	3년차	계		
2013년(시범사업)	16			16	84	
2014년	60			92	298	
2015년	32	60		92	502	
2016년		32	60		670	
2017년	37		31	68	832	
누적 수	129개 시군구				832개소	2018년부터 국비지원 중지되면서 지방비로 운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평가자료

○ 농어촌지역의 행복학습센터 운영내역

- 평생학습시설이 부족한 마을단위에서 운영되며, 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활용
- 평생학습매니저는 마을 주민 중에서 선장하여, 매니저는 마을 주민들의 평생 학습 수요를 파악하고, 시군은 조사된 수요를 반영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 행복학습센터는 129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군의 참

여는 129개 중 도시인 시구(市區)는 95개, 농촌으로 볼 수 있는 군(郡)은 34개가 참여

〈표 2-12〉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자체(129개 시군구(2017년 12월 기준))

구분	운영 지자체	시구	군
서울(15)	금천구, 서대문구, 송파구, 영등포구, 은평구, 관악구, 도봉구, 성동구, 양천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15	
부산(16)	금정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연제구, 진구, 해운대구, 기장군, 동구, 강서구, 동래구, 북구, 수영구, 중구	15	1
대구(5)	달서구, 북구, 수성구, 동구, 남구	5	
인천(6)	남구,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서구, 계양구	6	
광주(5)	광산구, 남구, 북구, 동구, 서구	5	
대전(4)	동구, 대덕구, 서구, 유성구	4	
울산(1)	중구	1	
세종(1)	세종	1	
경기(12)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고양시, 안산시, 양평군, 시흥시, 이천시, 화성시	12	
강원(12)	삼척시, 인제군, 태백시, 평창군, 강릉시, 동해시, 영월군, 정선군, 춘천시,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5	7
충북(8)	제천시, 진천군, 청주시, 단양군, 증평군, 옥천군, 음성군, 충주시	4	4
충남(6)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공주시, 논산시, 태안군	2	4
전북(8)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부안군, 전주시	6	2
전남(11)	곡성군, 순천시, 여수시, 담양군,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나주시, 영광군, 장흥군, 화순군	4	7
경북(7)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칠곡군, 고령군, 안동시, 의성군	4	3
경남(10)	거창군, 양산시, 창녕군, 창원시, 하동군, 고성군, 밀양시, 합천군, 사천시, 산청군	4	6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2	
계		95	3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평가자료

2.2 추진실태 평가

○ 주요사업내용

-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설치
- 주민의 평생교육요구를 가장 근거리에서 파악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 유휴시설의 기능을 전환하거나 주민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

- 학습매니저: 학습수요파악, 학습자 지원들을 위한 매니저 양성 및 배치
- 시도-시군구 연계를 통한 거점센터 운영활성화
- (시군구거점센터) 평생학습 수요조사, 행복학습센터 시설발굴, 행복학습 매니저 양성, 배치·모니터링, 행복학습센터간 연계체계 구축
-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 특히 농어촌 등 평생교육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예 :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노인 건강을 위한 평생교육, 체육 프로그램 등)

〈표 2-13〉 행복학습센터 운영 실적

	총계	2014	2015	2016	2017
프로그램참여·이수자수	228,193	44,930	72,481	88,178	22,604
경제활동참여자수	1,887	339	557	690	301
사회환원활동참여자수	16,606	3,755	4,068	6,275	2,508
행복학습매니저 수	2,948	551	890	1,091	41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각년도 삶의 질 시행계획 평가자료

○ 정책평가

-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평생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토대 마련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관련 조례 개정

(평생교육법 제21조 2)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완주군 평생학습진흥조례
 제9조(평생학습센터설치)
 ① 군민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국제화·지방화·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완주군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근거리 평생학습권보장)
 ① 군수는 주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단위평생학습센터 등을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읍면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4.11.12. 조례 2421]

-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학습가능한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 소외된 지역의 유희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학습시설화로 학습 공간 확대 및 접근성 높임.
 - 그러나 농어촌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다소 부족

〈표 2-14〉 충북 증평군 행복학습센터 주소 및 연락처

센터명	시설명(장소명)	주소	연락처
행복학습 거점센터	증평군립도서관	증평군 증평읍 광창로 37	043-835-4623
증평읍 행복학습센터	증평읍 읍사무소	증평군 증평읍 광창로 88 증평군청	043-835-3264
도안면 행복학습센터	도안 문화센터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043-835-3372
충용부대 행복학습센터	늘푸른아파트	증평군 증평읍 초정약수로 늘푸른아파트	043-835-4623
흑표부대 행복학습센터	흑표아파트	증평군 증평읍 안골길 흑표아파트	043-835-4623

자료: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2016. 충청북도 행복학습센터 운영성과집

- 마을단위 학습관리인력인 학습매니저 양성 지역평생학습 준전문가 양성
 - 행복학습센터 운영인력은 학습매니저, ‘평생학습코디네이터’ ‘마을평생

교육지도자(경북) ‘학습자원활동가’ ‘학습정원사’ ‘학습반디매니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

- 학습매니저는 일반주민 중에서 학습매니저 양성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에 배치되어 활동함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지역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운영하는데 기여함.
- 평생학습영역에서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특히 고등교육 이수한 경력단절 여성)로 각광받고 있음.

○ 양성된 학습매니저를 배치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행복학습센터 공간에서 다양한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이 운영
- 아동, 청소년, 노인, 주부 대상으로 취업,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이어짐.

〈그림 2-4〉 충북 증평군 행복학습센터 사례



자료: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2016. 충청북도 행복학습센터 운영성과집

[운영사례 1] 전북 남원시 혼불마을행복학습센터 - 문해세대공감

마을회관 밖으로 들리는 수강생들의 웃음소리와 글 읽는 소리, 목소리에 열정이 묻어난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웅기종기 모여 앉아 백발의 수강생들이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혼불마을 행복학습센터 문해 세대공감 수강생들을 처음 만난 나의 기억이다. 나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내 이름을 말하는 순간 수강생들의 손이 바빠진다. 내 이름을 적기위해 한자 한자 고민 또 고민하며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적으신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한글을 접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저러할까... 아마도 그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진지하지 않을까 싶다.

혼불마을 문해 세대공감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는 행복학습프로그램이다. 강의실 안에서의 수업도 맞춤형 학습지도로 만족도가 높지만 좋은 강연과 영화가 있으면 수강생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학습(도서관 견학, 시화전 전시회 등)으로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평소 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강사님의 정성이 놀랍다. 하지만 강사님 혼자 힘으로 이런 외부학습이 가능할까. 그에 못지 않은 수강생들의 호응, 100% 참석률이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분들을 보면서 농촌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접했으면 하는 마음이 커진다.



자료: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2016. 2016 행복학습센터 결과보고&우수사례집

[운영사례 2] 충남 서천군 판교면 생태환경교육

충남 서천군: 지역 기관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점방향)** 지역 연구기관의 재능기부 활용, 지역의 환경문제 공유 등 생태환경교육 진행
- **(주요내용)** 지역 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 연구원의 재능 기부, 마을 단위 어르신 대상 생태환경교육을 통한 사회 환원 활동
- 마을 어르신 대상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건강과 관련하여 교육, '천연제품 만들기', '내 집 앞 한 평 정원 만들기' 등의 활동 진행



〈 판교면 생태환경교육/ 화단 이름표 만들기(충남 서천군) 〉

2.3 제4차 계획 제언

- 행복학습센터는 가장 풀뿌리에 있는 지역 평생교육의 구동체로서 지역의 균형발전,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토대
- 단기지원사업으로 현재 국가예산이 중단된 상태임. 평생학습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진 소외된 농어촌지역민을 위해 국가지원이 반드시 재개되어야 함.
- 행복학습센터를 조성운영할 평생학습매니저의 지속적 육성과 지원이 필요
- 농어촌 행복학습센터의 성공적인 결과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정책 필요

-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은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된 사업으로 도시지역이 수혜를 받음. 농어촌을 위한 특별 배려가 필요

3. 교육공동체

3.1. 정책군 개요

- 2-4-1-1 교육공동체 발굴·지원
 - 면단위 이하에서 2개 이상의 교육주체(학교, 마을, 기관, 단체 등의 협력을 ‘공동체’라 부른다.)들이 협업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을 지원
 - 농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 방과 후,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한 학습지원, 진로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교육 등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 매년 20개소, 개소당 최대 25백만원 이내 차등지원
- 기존의 주민 문화·복지 사업과 통합하여 운영
 - '15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 '16년 주민들의 교육·문화·복지로 통합
 - 동일 대상(공동체)에 3년 이상의 지속적 추진을 원칙
 - 기존의 지역 주민 지원 사업과 아동·청소년 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에 따라 공동체에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함.

3.2 추진 실태 평가

□ 농어촌 주민 주체의 교육공동체 구축

- 주민들의 생활 체감형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추진
 - 지역 주민의 수요에 따라 면단위 주민공동체(15명 이상)에 프로그램 지원
 - * 교육·문화·복지를 하나로 융합하거나 교육·문화·복지 중 1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강사료, 기자재 대여비, 재료비 등 직접비 90%, 회의 등 간접비 10%)
 - 원활한 사업비 진행을 위해 법인격이 있는 단체(공동체 구성원)가 사업 추진
 - 장소는 농촌 지역 내 유휴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고, 이동거리 등 수혜자 접근 가능성 고려
 - 예산은 수혜인원, 지원횟수·시간, 사업유형 등에 따라 차등지원
 - * 3년차 지원대상은 3년차 지원 후 자립운영이 원칙이므로 자립·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축소 등 자립 유도

- 주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자생적 교육공동체 발굴·지원
 - 주민이 제안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자생적인 교육공동체 발굴·지원에 노력
 -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 및 선정 추진(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실시)
 - 주민 수요 반영 중심의 평가 : 사업 필요성, 수요조사 결과 반영 여부, 공동체·프로그램 구성, 사업 추진 능력,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선정
 - 우수사례집 제작하여 전국 농촌 교육·문화·복지 유관기관·주민공동체 등 배포, 신문 기획보도 추진 등 홍보

□ 농촌 교육·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 두 사업의 통합으로 인한 목표 대비 실적 과다
 - 문화·복지 사업과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 사업을 통합
 - 교육·문화·복지 공동체 지원 개소수를 기초로 목표 대비 실적에 따른 달성도 제시 필요
 - * '16년에는 목표치 20개소 → 실적 157개소로 785%의 높은 달성도
 - * '17년에는 목표치 172개소 → 실적 175개소로 101.7%의 달성도
 - 목표 대비 실적이 기하급수적인 이유는 기존의 분리되어 있던 사업을 통합하면서 생긴 일로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사업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

- 농촌 주민의 교육과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의 부각 필요
 - 교육을 중심으로 주민과 아동·청소년의 필요가 연결되는 것은 이 사업 초기의 목표임.
 - 두 사업의 재 분리 고민 필요함. 이미 생활 문화나 복지 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재원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주민의 평생학습을 연결하는 구조를 새롭게 짜야 함.

3.3 제4차 계획 제언

□ 주민과 아동·청소년들이 함께 성장하는 농촌 교육공동체 조성

- 최초의 기본계획의 목표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마음이 필요하다'는 주민의 교육 주체화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 사업들(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청소년아카데미, 진로교육사업 등)과 연결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을 교육의 주체로 만들어가는 사업임.

- 단순히 아동·청소년의 교육사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역량을 키우는 관점이 강화되어야 함.
- 지역의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나아가 전시회, 지역축제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교육공동체 형성을 도모
- 새로운 사업으로 인식의 확산이 매우 필요함.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여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상호 학습을 통한 공동체 학습의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도록 함.

□ 농촌 교육공동체 지원을 통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충족 필요

- 주민의 평생학습(계속 20% 미달)과 아동·청소년들의 방과후교육이라는 서비스기준 세부 목표를 상호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의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공동체 발굴·지원 사업이 지속될수록 더 많은 공동체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규모 확대 필요
- 성과목표 기준 항목과 관련하여 지원 공동체 증가 수치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실 증진을 위해 성인의 평생교육과 아동·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을 상호 연결하는 교육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성과지표에 추가 필요

[우수 사례] 홍천 동면 새끼줄

전교생 5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 학부모들의 독서동아리에서 시작한 새끼줄 교육공동체는 점심시간에 사서 자원봉사자와 책축제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다. 그리고 마을에 돌볼 아이들이 더 많다는 인식 속에서 교우관계의 문제 (1년에 한명씩 전학감) 학년을 초월해서 언니오빠 동생과 함께 운영해보자고 기획하였다. 학부모들이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공동체 사업에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을 주민들 중 귀농 귀촌 가정들이 늘어나면서(60%) 총체적으로 해결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들자는 새로운 목표로 이어졌다.

공모사업에는 텃밭, 역량강화 아카데미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민은 2-3년 근무하고 떠나는 교사 대신에 마을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구석구석에 동양화 목공 연극 조각가 명상 마을 분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올 초는 능력있는 분야에서 시작했지만 모든 주민들이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 생활 속에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공간은 마을회관, 학교 문을 열고 주민자치센터 경로당을 열어 진행하며 이장님, 병법대에서 차량 지원하고 있다. 현재 47명의 학생 35가정(11명 부모의 적극 참여)과 학생들 8-90% 참여하고 있다.

4. 지역교육 거버넌스·지원체계

4.1. 정책군 개요

- 2-2-1-1 농어촌교육지원 체계화
 - 농어촌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농어촌 여건을 감안한 교육발전 방안 연구 및 개선사업 추진 지원 체계화
 - * '14년부터 농어촌 교육지원센터 운영(서울대 '14.7~'18.6)
 - 사업규모
 - * 1차년도('14.7.~ '16.6.): 704백만원
 - * 2차년도('16.7.~ '18.6.): 500백만원

- 2-2-3-1 농어촌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장 공모 확대: 농어촌 학교에 적합한 인재가 공모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어촌에 공모학교를 우선 지정하도록 유도하는 등
모니터링·관리 강화

- 농어촌 학교 교원 배치 내실화: 학생 밀도 및 읍면지역 학교 비율 등을 고려한 교원 배치를 통해 농어촌 학교 배려
- 농어촌 신규 교원 육성: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운영을 위하 필요한 경우 신규채용시 일정기간(5년) 이상 도서벽지, 면단위 농어촌지역 근무 조건으로 별도 구분 채용 확대

○ 2-4-1-2 교육청 평가 개선

-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시 농어촌 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 지자체와의 협력 정도 등 평가지표 발굴 및 개선, 관리
- *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농어촌 학교 수 비율 대비 농어촌 학교 교부예산 비율’을 평가지표에 포함

4.2 추진 실태 평가

□ 농어촌 교육지원 체계화

-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농산어촌 ICT 지원, 거점별 우수중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추진
 - 우수중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실시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교육청 담당자 대상 농산어촌 교육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포럼 실시
 - 교원의 ICT 활용 역량 강화 및 운영 노하우 공유 활성화를 위해 ICT 활용 수업연구회 팀장 및 팀원 대상 연수 운영
 - 권역별 교장단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우수중학교 교장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사례 및 지역사회 자원 등 정보 공유
-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 교장단 권역별 협의회 운영('16.7.~'17.6.)

- 농산어촌 ICT 초·중학교 지원 학교 교원의 ICT 활용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ICT 사업 지원 대상학교 교원 연수 운영
- 농어촌교육지원 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추진
 - ICT인프라 활용도 향상을 위한 학교 현장 방문 컨설팅 운영
 - ※ 권역별 초·중학교 1개교씩 20교 대상 실시, 서울대생 참여한 멘토링과 병행 운영
 -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성과관리 연구 실시 후 결과 공유 및 피드백
 -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성과평가 연구('17.6.~9.)
 - ※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사업 만족도 수준 향상(3.87→4.07)
 - '17년도 농어촌 ICT 수업연구회 성과평가 실시
 - ※ 총 6개의 수업연구회 선정: 최우수 1팀(경남), 우수 2팀(경기, 전남), 장려 3팀(충남, 경북, 전북)
 -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개선 성과관리 연구('17.6.~9.)
 - ※ 농산어촌 ICT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만족도 분석(설문조사실시)
- 농어촌교육지원 사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보제공
 - 단위학교 특색프로그램 우수사례집 보급*을 통한 우수중학교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발간 및 보급
 - 농산어촌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ICT를 활용한 수업만들기 관련 교육훈련 소개집'을 개발 및 보급
- 주요 성과
 - 일선교원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을 통해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
 - 농산어촌 ICT 활용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컨설팅 수행으로 수요자의 만족도 개선

□ 농어촌학교 활성화 주제 육성

- 농어촌 학교 교장 공모 확대: 정년퇴직 등 교장결원 대비 1/3~2/3 범위 내 농어촌 지역 학교를 공모학교로 지정하여 농어촌 지역에 열의 있는 우수한 교장이 지원하여 농어촌학교 활성화
- 농어촌 학교 교원 배치 내실화: 기존 배정기준인 ‘지역군별 보정지수’에서 ‘전국평균 학교별(동일 학생구간) 학생수’로 변경('16.2.29. 법령* 개정)하여 농어촌학교가 많은 도(道) 지역의 교원 정원 배정 배려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법령 개정을 통한 학생수 기준의 교원 정원 배정 결과, 농어촌 학교가 많은 도 지역의 교사 1인당 학생수 개선

〈표 2-15〉 2015~2017 도교육청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교급	2015	2016	2017	증감 (2015~17)
초	17.6	15.4	15.4	△2.2
중	18.2	13.9	13.2	△5.0
고	16.5	13.9	13.4	△3.1

자료: 교육통계연보

- 농어촌 신규 교원 육성: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제도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교원의 안정적 확보 및 농어촌 학교의 교육 경쟁력 제고
 - 교원 전보가 잦은 농어촌, 도서 지역에 의무기간(8년) 동안 근무하는 지역구분 모집 확대로 합격인원 증가
 - ※ '15학년도 81명(충남56, 전남25) → '16학년도 82명(경기45, 충남19, 전북11, 전남7) → '17학년도 102명(경기65, 충남13, 전북17, 전남7) → '18학년도 143명(경기106, 충남19, 전북8, 전남10)

□ 교육청 평가제도 개선

- 추진내용 및 실적: '16년 도교육청 평가 시 「농어촌학교 등 교육지원 강화」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교육청별 농어촌 교육지원 노력도 평가
- 주요 성과: 도교육청별 농어촌 교육지원 현황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마련 및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시도교육청 관심 증대

4.3 제4차 계획 제언

- 농어촌 교육여건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 방안 필요
 -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 모두 지원
 - 지자체 단위 농촌 교육 협의체, 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 지역단위 농촌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을 위한 지방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농어촌 교육 활성화 논의 촉진
 - * 지방 교육행정협의회 산하에 농어촌 교육 분과 설치 등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명시하고 제도개선 일정 등 보완

[우수사례] 진안 로컬에듀

진안에서는 기초지자체 행정구역을 범위로 하여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만들어감. 지역의 작은 학교 통폐합정책과 지방소멸로 마을에 학교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는데, 귀농·귀촌을 꿈꾸는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그 지역에 비전을 가진 학교가 있는가로 여기고,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자녀가 다녀야 할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교육과 일자리문제는 학교와 마을, 혹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풀어나가고 있음.

[우수사례] 제주 교육·행정협의회

제주도는 제주도교육청과 교육발전을 함께 모색하고자 지난 2007년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10년 동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많은 현안을 처리하였다. 2014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미전입된 학교용지 부담금 110억 5,800만원이 전액 전입되었으며, 또한 서귀포시 개발 사업 지역 내 기존 학교 증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47억 9,000만원도 작년에 전액 전입되어, 학생 배치 여건 개선 및 교육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국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2015년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이 제주 최초의 전국기능대회 유치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올해 9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제주 기술 발전과 특성화고 활성화에 동력이 됐다. 2016년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도세 전출 비율 상향 조정(3.6% → 5%)이 합의되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청정과 공존의 제주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 인재 육성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친환경급식비 분담 비율 상향 지원(50% → 60%)이 올해부터 실시되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

5. 제 4차 계획을 위한 시사점 종합

- 제 3차 삶의 질 계획 교육 부문은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실현을 위해 농어촌 공교육 서비스 확충, 맞춤형 프로그램 및 주체 육성, 교육 복지 확대, 지역과 학교 연계 강화 등을 추구하였음.
 - 농어촌 학교 ICT 기기보급, 농어촌 거점 중학교, 원격 진로멘토링, 농어촌 유학 지원 등이 새롭게 시도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교육 관련 문제들이 산재함.
 - 주민들의 도농간의 교육만족도 차이는 여전히 높고, 농어촌 지역내에서도 읍면간 교육 격차가 존재함.
 - 제 3차 삶의 질 계획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을 추구하였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성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 청년세대들의 농어촌 교육에 대한 불만이 높아, 농어촌을 떠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장애인, 다문화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조손 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농

어촌 교육 복지 강화가 필요하고,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과 더불어 높은 노인의 문해교육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제3차 삶의질 계획 교육 부문 평가는 교육복지, 평생학습, 교육공동체, 지역 교육 거버넌스·지원체계 등 4개 정책군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음.

- 선별적 농촌 학교 지원은 선정되지 못하는 학교의 교육 환경을 상대적으로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모든 학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복지(기초안전망, 기초학습, 문화·예술·체육, 사회성, 심리·정서 등)가 확보되어야함.
- 농어촌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확대 추진이 필요함.
- 농어촌 교육여건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적 운영 방안 필요함. 농어촌 교육중간지원조직은 학교 교육 뿐아니라 일반 주민의 평생교육을 모두 지원해야함.
- 지역단위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을 위한 지방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농어촌 교육 활성화 논의 촉진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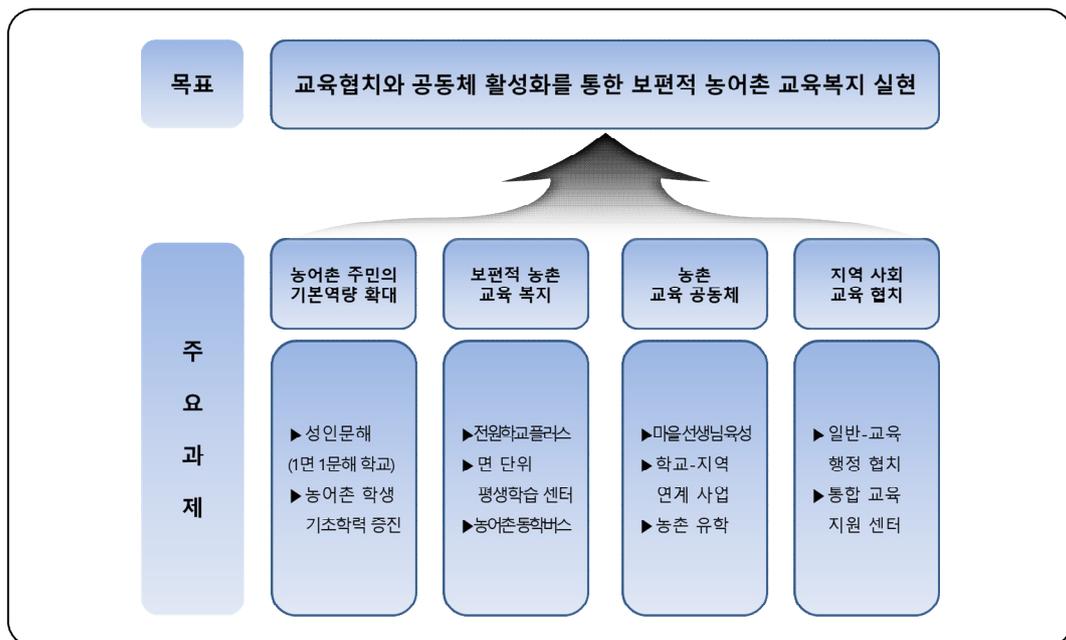
제 3 장

교육 부문 개선 방향 및 과제

1. 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방향

- 교육 협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보편적 농어촌 교육 복지의 실현

〈그림 3-1〉 4차 삶의 질 계획 교육부문 목표와 주요과제



- 제 4차 삶의질 계획에서는 교육부문의 기본방향을 ‘교육 협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보편적 농어촌 교육 복지의 실현’으로 설정함. 농어촌 성인의 문해능력(기초 문해, 기능 문해)과 더불어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배양 등 농어촌 주민의 기본역량을 확대하고, 선별적인 교육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구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차원의 지역사회 교육협치 실현을 추구하고자 함.

[주요 성과 지표]

- 1면 1문해학교 : 전국 면지역 학교의 50%가 운영
- 전원학교 플러스: 전국 면단위당 1개교 운영
- 지역 마을교사 육성: 100명/시군
- 농촌유학: (2018년 22개) → (2023년)30개소
- 통합교육지원센터: 시군별 1개교

2. 신규 정책 아젠다

2-1. 농어촌 주민의 기본 역량

성인 문해 교육 활성화

- 필요성 · 목적 (추진배경)
 - 농촌의 비문해가 도시에 비해서 심각.
 - 면단위 지역의 노인의 경우 대다수가 문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노인들의 경우 인근지역 교육을 선호
- 사업 내용
 - 면단위 농촌 초등학교의 유휴 교육 자원(교사, 시설)의 활용하여 인근 지

역 노인들의 문해 교육을 실시

-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의 활성화시키면서 심각한 농촌 노인 문해 교육 접근성 문제 해소
- 문해교육 참여 노인들의 의한 돌봄 보조기능 수행

[우수사례] 김천 대덕초 디딤돌학교 사례

- 농어촌 소외지역에 학교 교육자원(시설, 교원)을 활용하여 문해교육 실시하고자 2016년 교육부 시범연구학교 (전국 3개교)로 시작 + 이후 경북교육청의 지원으로 2019년까지 3개년간 운영
- 운영기간: 매년 3월~다음해 1월 (교육시간 240시간)
- 장소: 대덕초등학교 디딤돌교실
- 대상: 대덕면내 비문해 어르신 21,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 1명 계: 22명
- 지도강사: 본교 교사 5명, 학교장 계: 6명
- 지도 내용 및 교재
 - 문해교육

단계	주별 수업 시수	총 시수	수업비중	
			문해교과	통합교과
소망의 나무	주 2회, 4시간	40주, 총 160시간	87%	수학 13%
배움의 나무	주 3회, 6시간	40주, 총 240시간	75%	수학 10%, 영어 10%, 음악/미술 5%
지혜의 나무	주 3회, 6시간	40주, 총 240시간	70%	수학 15%, 영어 10%, 한자/음악/미술 10%

- 생활문해: 역사, 컴퓨터(휴대폰), 음악(민요, 동요) 미술(만들기, 꾸미기) - 120시간
- 운영시간
 - 평일: 오후 3시~오후 4시 30분(2시간 지도, 1시간 40분 수업)
 - 방학 중: 오전 9시~오후 12시 10분(4시간 지도 후 귀가)
- 학교 활성화 효과
 - 어린이 학생 26명 + 노인 학생 22명

○ 사업 성과지표(목표)

- 2019년 : 도별 1개교 → 2022년: 농어촌 시·군별 1개교

□ 농어촌 학생 기초학력 증진

○ 필요성·목적 (추진배경)

- 농어촌지역은 과도한 노동,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증가 등의 사유로 학부모의 돌봄과 교육기능을 감당할 여건이 부족함.
- 언어와 산수는 생활과 학습의 기본도구로서 읽기·쓰기, 셈하기 능력의 결핍은 이후 학습능력 결손으로 이어짐.
- 학령기 학습 결손을 보충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자존감을 회복시키고자 함.

○ 사업 내용

- 방과후 공부방
 - 대상 : 학생(초, 중 분리)
 - 교사 : 교사 또는 마을교사
 - 시간 : 6시간/주 (2시간/일×3회)
 - 장소 : 학교 또는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
 - 내용 : 문자·기호해독·어휘 학습, 4칙연산 셈하기
 - 예산 : 10,000,000원/년(1개교)
- 일과후 공부방
 - 대상 : 주민
 - 교사 : 교사 또는 마을교사
 - 시간 : 4시간/주 (2시간/일×2회)
 - 장소 : 학교 또는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
 - 내용 : 문자·기호(읽기, 쓰기), 산수(덧셈, 빼셈, 곱셈, 나눗셈)
 - 예산 : 20,000,000원/년(1면 2개교)

○ 사업성과 지표

- 학생의 기초학습 부진율과 주민의 문해율 변화

2-2. 보편적 농어촌 교육 복지

□ 전원학교 플러스

○ 필요성 · 목적 (추진배경)

-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 농산어촌 전원학교는 농촌의 생태적 환경을 활용하여 지역에 맞는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농촌형 학교 모델임
- 그동안 추진된 농산어촌 전원학교는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첨단 e-러닝교실, 시설비 지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는 더 열악한 여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었음.
- 농촌의 자연 생태적 교육환경을 이용하고, 지역의 특색에 부합되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교육을 접목시키고,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돌보고 보충해 주는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전원학교(전원학교 플러스)를 모든 농촌학교에 적용한다면 농촌교육이 활성화되고, 귀농·귀촌 하는 젊은이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음.
- 농촌교육 발전을 위해 전원학교 플러스를 농촌교육의 보편적 모형으로 선정한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농촌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전원학교 플러스 사업 실시
- 전원학교 플러스 사업에는 혁신교육, 돌봄교육, 생태교육이 함께 포함되어야 함.
- ※ 혁신교육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교육혁신임. 돌봄교육은 기초학력, 인성지도, 방과후 돌봄 등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을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돌보는 교육임. 생태교육은 학교가 처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 교육을 하는 교육임.

○ 사업 성과지표(목표)

- 농촌의 초등학교, 중학교 중 전원학교 플러스 사업수
- 초등학교, 중학교 중 연차별 전원학교플러스 선정 학교수
- 전원학교플러스 학교의 혁신교육, 돌봄교육, 생태교육의 적용도

□ 면단위 평생학습센터

○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 성인들이 평생학습참여를 가로 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간 부족과 평생교육기관의 낮은 접근성임.
- 농어촌은 특히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기반시설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아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낮은 삶의 질, 낮은 행복감으로 이어지고 있음.
- 농어촌의 최소한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구역인 면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평생학습의 소외를 극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함.

○ 사업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사업으로 평생학습에서 소외된 농어촌 면단위에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을 이용하여 1개 이상의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행복학습센터 사업의 지속 추진)
- 면단위 이하에서 평생학습센터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기획 및 운영, 학습자모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학습매니저를 양성하고 배치하고 지원하여 프로그램운영 활성화 및 프로그램기획운영의 전문성 보장

○ 사업성과지표

- 농어촌 면단위에 1개 이상의 마을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
- 농어촌 면단위 평생학습센터의 전담인력인 평생학습매니저 양성 및 배치

□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

○ 필요성 · 목적 (추진배경)

- 농촌의 지리적 여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등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악화됨.
- 그러나 통학버스가 없는 농촌 지역도 여전히 존재하며, 통학버스가 있더라도 학교별 운영, 학년별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에 운영되던 통학 버스조차 수익성이 저조를 이유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함.
- 농촌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통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내용

- 안정적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유 통학버스’의 확대

〈참고〉 강원도교육청의 ‘에듀버스’

- 학교별로 배정된 버스를 시·군별로 묶어 등·하교와 현장체험학습 등에 효율적으로 이용
- 개별 학교가 관리하던 학교버스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교통수단을 공유하는 개념
- 학생들은 집에서 가까운 노선을 선택해 등·하교시 이용

- 개별 학생의 통학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통학 지원

〈참고〉 강원교육희망재단의 ‘꽃님이 통학 프로젝트’

-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하교 시각의 차이에 따른 통학버스 이용 불편 해결을 위한 정책
- 통학버스(강원도 에듀버스) 이용이 어렵고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원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통학택시’ 혹은 ‘교통전용카드’를 지원

〈참고〉 평창군의 농촌지역 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후 귀가를 지원
- 지자체와 지역내 택시 사업자가 협약을 맺고, 학생 부담 소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자체가 보조
- 지자체 조례 제정(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으로 안정적 예산 확보

- 통학버스, 통학택시 등 운영에 사회적 경제 시스템 도입(가칭 ‘협동형 통학 수단 지원’)
 - : 같은 마을의 학부모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공동출자하여 통학수단(소형버스, 승합차 등)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자체 혹은 지역교육청에서 보조
- 사업 성과지표(목표)
 - ‘공유 통학버스’ 차량의 운행 노선 수, 차량 수
 - ‘공유 통학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학생, 학부모)
 - ‘협동형 통학 수단 지원’ 대상 협동조합 혹은 부모모임의 수
 - ‘맞춤형 통학 지원’ 수혜 학생 수

2-3. 농어촌 교육 공동체

□ 마을 선생님 / 지역-학교 연계

- 필요성·목적 (추진배경)
 - 농어촌지역은 과도한 노동, 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 증가 등의 사유로 학부모의 돌봄과 교육기능을 감당할 여건이 부족함.
 - 농어촌학생들의 기초안전망, 기초학습, 문화·예술·체육, 사회성, 심리·정서 등 교육복지를 지원할 지역교육자원 양성이 필요함.
 -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증가하여 기존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외에 다양한 보조교사가 필요함.
 - 제한적인 농어촌지역의 농업생산 외에 소득보존 방안으로 귀촌인력을 활용하여 농어촌교육과정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음.
- 사업 내용
 - 지역 마을교사 육성

- 대상 : 지역주민 또는 귀농·귀촌 대상자
- 시간 : 과목별 20시간
- 장소 : 기초자치단체 또는 시군교육지원청
- 내용 : 수요 우선순위별 과목을 선정하여 양성과정 운영
교육학 기초(40%)와 분야별 기본 교육과정(60%)
- 분야 : 독서, 문해, 산수, 문화, 예술, 체육, 진로, 생태·환경, 작물, 원예, 목공, 성평등, 민주시민, 통일, 다문화 등
- 예산 : 30,000,000원/년(1개군)
- 지역 마을교사 활용
 - 대상 : 학교 및 주민센터
 - 교사 : 지역 마을교사
 - 내용 : 교육과정(보조교사), 방과후교실(교사), 문해교육(교사)
- 사업성과 지표
 - 군별 마을교사 육성, 활용 실적 : (마을교사)명, (회)/(시간)수

□ 농촌 유학

- 필요성·목적 (추진배경)
 - 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반영한 활동을 통해 도시 아이들이 인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고방식 및 체력 향상에 기여
 - 농가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 함양 및 다양한 경험
 - 도시의 아이들의 농촌 유학으로 자연스럽게 농촌의 작은 학교 학생 수로 폐교 방지
- 사업 내용
 - 도시에서 입시중심 교육에 매몰되어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안적 교

육을 찾는 과정에서 농촌유학이 하나의 대안으로 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반영한 활동을 통해 도시 아이들이 인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고방식 및 체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던 시도임.

- 생태교육에 대한 철학과 교육관을 가진 활동가나 농가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 함양과 함께 농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사들과 계절의 변화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 등을 통해 도시생활 및 교육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음.
- 실제로 2011년 농촌문화정보센터에서 실시한 ‘4주 농촌유학 체험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신체, 정신, 행동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구체적으로 신체적 차원에서 근육량, 기초대사량은 늘고, 체지방율은 감소함. 정신적인 차원에서 우울지수는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은 높아짐. 행동 차원에서 스스로하기 및 규칙적 식습관이 모두 높아짐.

〈표 3-1〉 농촌유학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량	3	5	7	16	16	19	21	19	22
계	99	200	160	640	640	640	640	640	1,460
국고보조	99	200	160	320	320	320	320	320	730
지방비	-	-	-	320	320	320	320	320	730

자료: 하태욱(2015).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및 삶의 질 위원회(2017) 교육문화 분과 위원회 안건자료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 사업 성과지표(목표)

- 2018년 : 22개 센터 → 2022년: 50개 센터

2-4. 지역사회 교육협치

□ 일반-교육 행정 협치

○ 필요성 · 목적 (추진배경)

- 교육자치가 시행된 지 약 25년에 이르지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갈등은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해야 할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에서 각기 다른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혼란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사업 내용 (김홍주 2015)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면 상호 갈등과 잡음을 제거하고 지방교육 발전에 통합적 에너지를 투입
- 중앙, 광역, 기초 차원에서 각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기관 간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 하고, 상호 교육협력관을 교차 파견하며, 협력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편성한다. 그리고 협력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법령으로 규정하며, 동 협의기구에서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 혹은 사무도 법령으로 규정하여 협력의 강도를 제고
-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중앙-광역-기초의 각 단계별로 국회, 광역지방의회, 기초의회의 교육위원회와 더불어 중앙-광역-기초 수준마다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등의 다양한 교육공동체와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방교육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들과의 협업 및 소통과 참여를 강화함.
- 일반행정과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모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상호 권한과 의무를 공유하도록 사무를 재배분하며 이를 위해 권한의 이양과 위임 및 위탁을 확대함.

[우수사례] 제주 교육·행정협의회

제주도는 제주도교육청과 교육발전을 함께 모색하고자 지난 2007년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조례가 제정된 후 10년 동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많은 현안을 처리하였다. 2014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미전입된 학교용지 부담금 110억 5,800만원이 전액 전입되었으며, 또한 서귀포시 개발 사업 지역 내 기존 학교 증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47억 9,000만원도 작년에 전액 전입되어, 학생 배치 여건 개선 및 교육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국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2015년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이 제주 최초의 전국기능대회 유치에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올해 9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제주 기술 발전과 특성화고 활성화에 동력이 됐다. 2016년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는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도세 전출 비율 상향 조정(3.6% → 5%)이 합의되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청정과 공존의 제주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 인재 육성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친환경급식비 분담 비율 상향 지원(50% → 60%)이 올해부터 실시되면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

○ 사업 성과지표(목표)

- 2019년 광역단위 교육·행정 협의회 활성화 → 2022년 농어촌 기초지자체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 통합교육지원센터

○ 필요성·목적 (추진배경)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행정 지원의 연계 구조 필요
- 사업들과 프로그램의 통합을 위한 중간 기구의 역할 필요
- 최근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을 담당할 실무 조직 필요함.

○ 사업 내용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분절로 인하여 지역의 아동·청소년 교육지원과 주민의 평생교육 모두 분절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 행정과 사업간의 중간 기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통합교육지원센터

가 필요함.

- 현재 다양한 지역과 연계 교육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 이들을 중개하여 인력과 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사업의 통합을 이룰 수 있음.
- 방과후학교 사업을 비롯하여 진로 및 자유학기제 사업, 학부모교육사업, 학습부진학생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지역의 통합교육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함.
- 최근 교육부의 풀뿌리교육자치사업은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위해 센터 설치 내용 포함됨.

○ 사업 성과지표(목표)

- 2019년 : 10개 자치단체 → 2022년: 농어촌 시·군별 1개교

우수 사례(중간지원조직) : 완주군 통합교육지원센터

완주군과 교육지원청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로컬에듀라는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에 알려진 지역이다. 그러나 초기 사업비의 학교 집중, 일부 장학사들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등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하는 곤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던 '지역+교육연구소'라는 단체와 함께 통합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와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의 교육 주체가 풍부하지 않은 곳에 지역 실천 연구를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 전문 단체가 중간 지원 조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각각 학교에서 진행되던 사업들의 지역적 연계성이나 엄마 강사들의 양성 등 농촌 지역에서 겪고 있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09-2011. 학업성취도 평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성인문해능력조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7. 「성인문해능력조사」.
- 농촌진흥청. 2016.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 농촌진흥청. 2017. 「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 여성가족부. 2012.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통계청. 2015. 「인구총조사」.
- 하태욱. 2015.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및 삶의 질 위원회(2017)」.
- 송미령 외. 2016. 『농촌 취약계층 생활실태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은영·박지숙. 2017.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 『교육통계연보』.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6. 『교육통계연보』.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교육통계연보』.
-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 2016. 『2016 행복학습센터 결과보고&우수사례집』.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2016. 『충청북도 행복학습센터 운영성과집』.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2012. 전원학교 융성사업. 추진과정과 성과.
- 농림축산식품부. 2011~2018. 농림어업인 삶의질 시행계획 평가자료.